

우리 토박이말 달력 용어에 관한 연구

* Yeom Si-Yeol

** Kwon Pyong-Ro

A study of Korea original calendar's words made from Korea culture.

Although today's calendar used in Korea is from Western and Japanese culture, it needs to be written in words by Korean culture.

Accordingly there should be some reason for using Korea original words.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suggest to use Korea original words such as 'Bak-nal (Sun)' means the bright day, 'Han-nal (Mon)' means the first day of the week, 'Du-nal (Tue)' means the second day of the week, 'Sas-nal (Wed)' means the third day of the week, 'Nas-nal (Thu)' means the fourth day of the week, 'Das-nal (Fri)' means the fifth day of the week, 'Yeos-nal (Sat)' means the sixth day of the week.

Through the subdivisions of the four seasons: the 24 solar terms, we suggest that each season consists of three months such as 'Deulbom-dal (February)' means the beginning of spring, 'Onbom-dal (March)' means the perfect spring season, 'Mujigae-dal (April)' means the rainbow season, 'Deulyeoreum-dal (May)' means the beginning of summer, 'Onyeoreum-dal (June)' means the perfect summer season, 'Deowi-dal (July)' means the hot season, 'Deulgaeul-dal (August)' means the beginning of autumn, 'Ongaeul-dal (September)' means the perfect autumn season, 'Yeoul-dal (October)' means the tenth, 'Deulgyeoul-dal (November)' means the beginning of winter, 'Seot-dal (December)' means the last month of the year and 'Hanbak-dal (January)' means the bright month as well as the beginning of the seasons.

It is important to use Korea original words made from Korea culture. When we speak, the lexis system is used in the brain as Korean original phonologic system. Korea original words, which the ancient people used, make fully lexis system in the brain.

1. 머리말

1.1 한국인의 썸 살이

이 땅의 낱 썸을 살피면 아기의 자람과 아랑곳한 속살이 있다.

아기가 태어나서 이레 날¹⁾을 자라면 ‘첫 이레 지났다’하고, 또 이레를 자라면 ‘두 이레 지났다’고 한다. 이렇게 아이는 자라 일곱 이레를 지내면 사립문이나 대문에 걸었던 금줄을 거두게 된다. 네 이레를 나면서 ‘한달, 두달’ 하며 달을 세고 아기는 한달 아기가 되고 두 달 아기 세 달 아기가 되어 백날을 맞이하는 살이 썸을 산다. 백날이 지나면 돌날을 맞이하는 살이 썸에 들어간다. 돌이 될 때까지 아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먹은 나이를 받아 줄곧 한살이다. 두 살이 되는 날 생일상을 마련하거나 돌잔치를 한다. 이 잔치는 생일상을 차리고 삼시랑 할매와 조상님께 아이의 자람을 알리고 이제까지 자람에 고마운 마음을 아뢰는 자리가 되고 앞으로 튼튼하고 고이 자라기를 비손하는 자리가 된다.

일곱 썸은 불가(佛家)에서 영혼(靈魂)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천도제를 지내는 낱 썸에서 살필 수 있다. 사람이 죽으면 49일 만에 제사(祭祀)를 지내니 천지도수(天地度數)의 일곱썸 변화인 7×7은 49를 상징(象徵)하여 天地度數=天地道數로 같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덧나면 동의보감 신형편에 일곱 썸과 아랑곳한 이야기로 사람이 늙으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풀이한 속내²⁾가 있다.

* 군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어린이날’의 형태를 따라 이레 날(week/칠요일)이라 적는다.

1.2 우리말 용어 마련의 원칙과 문제제기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나라밖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 겨레 나름의 셈살이가 있는 까닭에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제나라 셈살이에서 비롯된 말을 달력 말로 쓸 필요가 있다. 일제 식민에서 비

2) 黃帝 問 사람이 늙으면 生子를 못하는 法은 氣力이 다함인가 ?

天壽가 그렇게 되는 法인가 ?

岐伯 答

여자는 7세에 腎氣가 盛하며 齒牙를 갈고 頭髮이 길어지며

14세에 天癸가 이르러 任脈이 通하며 太衝脈이 盛하고 月經이 나오므로 孕胎할 수 있고

21세에 腎氣가 平衡하므로 어금니가 나고

28세에 筋骨이 堅固하고 毛髮이 다 길어지며 身體가 壯盛하고

35세에 陽明脈이 衰하므로 顏面이 마르며 頭髮이 빠지기 시작하고

42세에 三陽脈이 위에서 衰하므로 顏面이 다 마르고 털이 희어지기 시작하며

49세에 任脈이 虛하고 太衝脈이 衰하며 天癸가 竭하고 地道가 不通하므로 形體가 무너지고 孕胎를 못하게 된다

남자는 8세에 腎氣가 實하고 頭髮이 길어지며 이를 갈고

16세에 腎氣가 盛하고 天癸에 이르며 精氣가 넘치고 陰陽이 和하므로 아이를 낳게 할 수 있고

24세에 腎氣가 平均하고 筋骨이 堅強하므로 어금니가 나고

32세에 筋骨이 隆盛하고 肌肉이 充壯하며

40세에 腎氣가 衰하기 시작하므로 머리털이 빠지며 齒牙가 마르고

48세에 陽氣가 上으로부터 衰하므로 顏面이 마르고 毛髮이 희어지며

56세에 肝氣가 衰하므로 힘줄의 활동이 懶惰해지고 天癸가 竭하며 精氣가 줄고 腎臟이 衰하여 形體가 마르기 시작하고

64세에 齒髮이 함께 脫落한다.

대개 腎이 水를 主로하여 五臟 六腑의 精氣를 받아서 低張하므로 五臟이 盛하면 精氣가 넘쳐흐르고 五臟이 衰하면 筋骨이 懈惰하며 天癸가 竭하고 毛髮이 희어지고 몸이 무겁고 行步가 不定하며 따라서 아이를 낳게 하지 못한다 라고 하였다.

못된 말은 일제가 우리말을 없애려한 의도가 뚜렷한데도 이 때에 쓰는 사람이 많다고 그저 따라 쓰는 일은 께적지근한 일이다.

우리 셈살이 말을 쓰지 않은 까닭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겨레붙이로써 이웃나라 사람들과 교류할 때 부끄러운 일³⁾이 없도록 새롭게 다듬어 쓸 필요가 있다.

이레 날 이름으로 우리 토박이말을 써야 하는 까닭을 가다듬으면 첫째로 우리 날짜살이 셈말의 전통을 잃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

둘째로 이웃 나라의 식민언어를 쓴다는 틀을 벗어날 수 있다.

셋째로 우리말의 소리 줄가리에 터전을 둔 말셈머리(어휘부)를 늘품(발전)할 수 있다.

넷째로 이 땅의 날짜살이 셈 새얼 이야기를 활용하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

3) 월화수... 의 요일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낙서장

출장 중에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직원들에게 스케줄을 알려주려고 칠판에 月, 火, 水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한자로

요일을 적어서 스케줄을 적어놨더니

한 중국애가 와서 묻더군요.

"저 월화수가 무슨 뜻이어요?"

앵? 저거 모르냐? 요일 아니냐? 그랬더니

막 웃더니 저런 거 침 본답니다.

자기네는 요일을

一일, 二일, 三일, 四일.... 이런 식으로 쓴답니다.

헐!

야닐 것이다...부모님들한테 물어봐라 예전엔 월화수목.. 썼을 꺼다.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진짜 저런 요일 침 본답니다.

헐...

그럼 월화수목금토일은 누가 만든 것이여....

2005/09/08 17:03 <http://blog.naver.com/deron/17150660>

우리말 용어 마련을 위한 본보기로 남북 정보기술용어표준화 사업⁴⁾을 내들면

우리말 용어는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통일안 시안이 마련되었다.

- ① 용어집은 남북한 각 지역에서 별도로 출판된다는 전제하에 완성한다.
- ② 원칙적으로 남북한 지역명을 명기하지 않고, 통일된 우리말 용어를 하나 제시한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한다.

i. 외래어가 선호될 경우에는 가능하면 우리말 고유어 용어도 추가한다.

ii. 남북한이 선호하는 용어의 차이가 현격히 차이날 때는 용어를 복수로 제시한다.

iii. 일한 의미를 갖지만 남북한에 달리 굳어진 용어에 대해서는 지역적 차이를 인정하고, 지역에 맞는 용어를 단수로 제시한다.

- ③ 남북한의 상이한 음운규칙과 맞춤법 표기를 인정한다.
- ④ 파생력이 큰 영어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말 고유어 표현을 찾도록 최선을 다한다.

여기에 덧붙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즈음에 서양이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한국문화의 특징에 맞는 교육미립과 내용을 마련해야 할 과제⁵⁾가 있다.

4) 2002년 2월 5일~9일 중국 연길시에서 남북한, 중국 조선어 관련 학자들이 모여 우리말 통일안 시안을 마련

5) 김중섭, 한국어 교육의 이해, 2004, 338쪽

2. 이웃 나라의 달력

중국은 달력에 이레 날을 ‘天(日)一 二 三 四 五 六’이라고 쓴다. 좀더 내들면 ‘xīngqīyī(星期一) : Monday’, ‘xīngqīè(星期二) : Tuesday’, ‘xīngqīsān(星期三) : Wednesday’, ‘xīngqīsì(星期四) : Thursday’, ‘xīngqīwǔ(星期五) : Friday’, ‘xīngqīliù(星期六) : Saturday’, ‘xīngqītiān (星期天) : Sunday ⇒ xīngqīrì(星期日)’ 이라고 부른다.

일본은 이레 날을 ‘日月火水木金土’ 요일(曜日)이라고 쓴다.

일본인들이 가려잡은 ‘월요일’ 하는 것의 ‘요일(曜日)’은 빛나는 일본일까? 왜 달날(月日) 하면 될 것을 굳이 빛날 요(曜日)자를 붙였을까? 살펴볼 일이다. 5급 배정한자 43쪽에 『日-14. ⑤ 빛날 요. 曜. 曜. 曜日(요일) 일주일의 각 날을 이르는 말. 七曜(칠요) 칠요일. 日曜日(일요일) 한 주의 마지막 날. 火曜日(화요일) 한 주의 둘째 날. ♣木曜日(목요일) 金曜日(금요일). 水-7』로 적고 있다.

칠요일⁶⁾이란 말을 쓰게 된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일본의 <정향력>⁷⁾이다

6) 《칠정산》의 칠정(七政)이란 일곱 개의 움직이는 별을 가리킨다. 해와 달 그리고 금성, 목성, 수성, 화성, 토성의 5행성이 그것이다. 요즘에는 칠정이란 표현보다는 칠요(七曜)라는 표현이 두루 쓰이고, 또 칠요라고 써야 알아듣기도 쉽겠지만, 옛 사람들에게는 이 두 말은 같은 뜻이었다. 요일의 이름도 바로 이 칠정으로부터 생겨났다. 여하튼 《칠정산》이란 이들 천체의 운동을 미리 계산하는 기술을 정리해 놓은 책인 셈이다. 세종 당시 우리 조상들에게는 별들의 운동이란 그저 천체의 운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졌다. 정치의 잘잘못이 그대로 하늘의 여러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믿음이 강하던 시대였기 때문이다.(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

7) 우리 나라에는 과학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많지 않다. 한국 과학사를 연구

요일(曜日)의 요(曜)는 구요당(九曜堂)에서 찾을 수 있다. 구요당(九曜堂)은 도교와 관련하여 고려 때 재초(齋醮)를 올리던 곳이다. 북두칠성과 그것을 보좌하는 옆의 두 별을 합쳐서 구요(九曜)라고 불렀다. 북두칠성의 일곱별 칠요는 서양의 일곱별⁸⁾과는 관련이 적다. 그런데도 이슬람천문역법에 따른 《칠정산》의 칠정(七政)이란 말을 쓰지 않고 도교의 초례 제당 구요당(九曜堂)의 요(曜)와 같은 신앙적 의미가 함축된 말인 요(曜)를 써서 요일(曜日)로 쓰고 있다.

이는 일본의 신도(神道)⁹⁾와 관련이 있는 문화를 바탕으로 한 언어

하는 사람은 더욱 적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천문학사까지 읽은 한국인이 거의 없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예를 들어 일본 천문학사의 권위자 한 사람인 나카야마 시게루 교수의 책 《일본의 천문학》에는 하루미가 《정향력》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준 한국인 학자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1643년 조선인 손님(客) 나산 박안기(螺山 朴安期)이란 인물이 에도(江戶)에 와서 역학에 관해 오카노이 겐테이(岡野井玄貞)와 토론했다는 말이 《하루미 선생 실기(春海先生實記)》에 나온다. 하루미는 바로 이 겐테이로부터 역학을 공부했다. 나산이 어떤 내용을 전해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선에서는 15세기 천문학의 최성기에 《칠정산(七政山)》 내편(內編)을 낸 바 있는데, 이는 수시력(授時曆) 연구의 뛰어난 텍스트로 꼽히고 있다. 명말(明末)에는 중국의 역산학 전통에 전에 비해 쇠퇴했으므로 당시 조선에서 역산학을 배우려던 태도는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일본의 천문학》 p.48)(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

8) 그들의 우주관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과 같았는데, 토성이 지구에서 가장 멀다고 생각했으며, 그 다음이 목성, 화성, 태양, 금성, 수성, 달의 순서였다. 그러나 거리와 상관없이 일곱 행성 가운데서도 가장 계급이 높은 신은 태양신이였다.

9) 신도(Shinto)는 '원시적' 부족신앙의 유형에 속한다. 먼저 조상숭배로 조상에는 씨족과 민족의 시조들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많은 무위적인 우주 개벽설적, 신계보적 신화들이 있다. 일본의 종교생활에서는 유일신론이나 다신론이나 하는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본이 다양한 형

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칠성 신앙¹⁰)에서 칠요일(七曜日)은 기본적으로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국가의 안녕을 비는 경우에 ‘일곱별이 비추는 날’과 ‘일곱별이 비추는 일본’이란 뜻이 활성화 될 수 있다. 문자 표기가 같은 요일(曜日)의 ‘日’자를 씬으로 언중(言衆)의 필요 따라 ‘날’이나 ‘일본’의 의미가 떠오를 수 있다. 따라서 시각화에 따른 의미가 활성화될 수 있는 다의어라 볼 수 있다.

활용옥편에 일(日)을 『자해 1. 날일 ㉠ 일과(日課). 2. 해일 ㉠ 일광(日光). 3. 낮일 ㉠ 일야(日夜). 4. 일본의 약칭 ㉠ 일인(日人)』로 적고 있다. 『화란자전(和蘭字彙)』¹¹⁾에서 살필 수 있는 의역한자어인 ‘일요일

태로 숭배하는 숭배대상은 사실상 자연, 인간과 신들 속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무소부재하며 항상 활동하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신도에서는 조상숭배, 자연신화, 민족의 역사와 문명이라는 영역들이 처음부터 완전히 뒤섞여있다

10) 일본에서는 칠성신이 인간에게 복을 주는 칠복신(七福神)으로 변화였다. 칠복신의 명칭을 살펴보면 대흑천(大黑天), 헤비수(惠比須), 미사문천(毘沙門天), 번재천(弁財天), 복록수(福祿壽), 수노인(壽老人), 포대(布袋)라고 부르며 명산 입구마다 많이 모셔져 있으며 상아나 옥으로 형상을 만들어 모시는 가정도 많이 있다. 어찌 보면 일본인들이 우리들보다 더 칠성신앙을 숭배하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한다.

11) 번역자 Hendrik Doeff(1777-1835), 1811-2 년 경부터 번역에 착수 1855-8년 사이에 사본으로서 간행됨. 최대의 난일 사서(蘭日辭書)로서 현대에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실용성을 갖추고 있다. 수록 어휘 약 4만 5천 단어, 후쿠자와(福澤諭吉)같은 당시의 선각자들이 난학(蘭書) 학습 시에 참고하였던 중요한 사전임.

근대 일본어 성립을 연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문헌. 특히 「病院, 視力, 分母, 花壇, 音響, 詩學, 文學, 文體, 人夫, 光線, 水準, 民俗, 戀人, 國家, 裁判所, 階級, 法律, 接吻, 平和, 平等, 本質, 日曜日, 自由」 등과 같은 다방면에 걸친 譯語가 등장한다. 이는 그대로 현대어의 한 淵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佐藤喜代治編(1977;289)의 『화란자전(和蘭字彙)』 향에 의하면 이미 ‘北極,

(にちようび /니찌요-비)을 ‘자해 1. 날일 日 일과(日課)’을 써서 직역하면 ‘해가 빛나는 날’이 되고, ‘월요일(げつようび/ 게쯔요-비)’은 ‘달이 빛나는 날’, ‘화요일(かようび /카요-비)’은 ‘화성이 빛나(비취)는 날’, ‘수요일(すいようび /스이요-비)’은 ‘수성이 빛나(비취)는 날’, ‘목요일(もくようび /모꾸요-비)’은 ‘목성이 빛나(비취)는 날’, ‘금요일(きんようび /킹요-비)’은 ‘금성이 빛나(비취)는 날’, ‘토요일(どようび /도요-비)’은 ‘토성이 빛나(비취)는 날’이 된다.

하지만 『자해 4. 일본의 약칭 日人』으로 직역하면 ‘일요일’은 ‘해가 빛나(비취)는 일본’, ‘월요일’은 ‘달이 빛나(비취)는 일본’, ‘화요일’은 ‘화성이 빛나(비취)는 일본’, ‘수요일’은 ‘수성이 빛나(비취)는 일본’, ‘목요일’은 ‘목성이 빛나(비취)는 일본’, ‘금요일’은 ‘금성이 빛나(비취)는 일본’, ‘토요일’은 ‘토성이 빛나(비취)는 일본’으로 적을 수도 있다.

그 까닭을 찾으면 동음이의어(homony)¹²와 다의어(polysemant)¹³

南極, 經度, 緯度, 傳染, 消化, 水準, 蒸氣, 揮發劑, 動詞, 自動詞’ 등이 명치 이래로 성립된 한어가 나타나고 있다. 근대 일본인들이 짧은 시간에 구미 문명의 세례를 받아 이를 빨리 일본화하려는 생각에서 당대의 진취적인 인물들이 악전고투하여 이룩해 낸 결과라고 기록하고 있다.(김광해, 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12) 한 언어 내에서 음은 동일하나 의미가 다른 둘 이상의 말. 정확하게는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이다. 본래 동일어원에서 분화하여 별개의 단어로 의식되는 것과 아주 다른 어원에서 나온 것 두 종류가 있다. 전자의 예로는 <밥을 먹다·귀가 먹다>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말[馬·斗(마두)]> <초[燭(축)·醋(초)]> <정의(正義·定義)> <불리(不利)·분리(分離)> 등이 있는데 후자에는 많은 한자어가 포함된다. 구어(口語)에서는 강약이나 문맥에 의해 구별되는 수가 많으나 흔히 오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한쪽 말이 소멸되거나 음운변화로서 혼동을 피하는 일이 있다. 이것을 동음충돌회피라고 한다. 동음어는 재담이나 발명을 붙이는 데 이용되고, 시작(詩作)에서 운율적 효용성을 발휘하는 데 쓰인다. 글에서는 한자를 써서 혼동

는 낱말과 낱말들 사이에 어떤 공통성과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범주로 묶여진 낱말들은 “단어들이 어떤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알기 쉽도록 시각화 시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단어들은 ‘서로가 서로를 환기한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머리 속에 떠올리면 그 단어만이 인출(retrieval)되지 않는다. 그 단어들과 연결되어 있는 주변 단어들도 함께 활성화된다. 활성화된 주변 단어들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인출된다(채현식, 2003, 57). 따라서 日(날/day)과 日(일본)은 표기가 같은 형태로 시각화되는 까닭에 사용자의 처지에 따라서 日(일본) 의미가 쉽게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속살을 가진 말을 광복 60돌이 되도록 생각 없이 쓰는 일은 꺾쩍지근한 일이다.

을 피할 수 있다.

13) 의미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2개 이상의 뜻을 갖는 단어. 일반 사전에는 2개 이상의 의미가 열거된 항목이 많으나, 이것을 그대로 다의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어느 하나의 의미가 전후관계에 의해서 표면상 다른 뜻으로 나타나 그것이 그대로 다른 의미로 오인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하나의 뜻 또는 여러 뜻이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의미변화가 계속 일어난 결과, 마침내 의미상의 관련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다의어가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로 분화한 것이 된다. 언어학에서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구별방법에 대한 많은 고찰이 이루어져 왔으나, 명백한 결론은 짓지 못하고 있다. 한편, 양자는 연관되어 있어 구별 짓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다는 주장도 있다. 다의적 의미간의 의미관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의(基本義)와 비유적 전의(轉義),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특수어(特殊義) 등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이고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일수록 다의어가 되는 수가 많다

3. 우리 새얼 날짜살이 속내

우리 겨레 이야기에는 해 자체보다는 온하늘(우주)이 밝은 모습 ‘환하다(한하다)’와 아랑곳한 말이 많이 나온다. 날이 새면 또는 날이 밝으면 그 밝음을 따라 삶터를 일구어가는 속살이 있다. 따라서 ‘밝듬¹⁴⁾’을 말미으로 하는 ‘밝’으로 일(日)을 갈음할 수 있다. 새해를 여는 제사를 모시던 한밤달(태백산)에서 살필 수 있듯이 우리겨레는 ‘밝듬’을 매우 중요롭게 생각하였다.

날을 세는 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레가 있다. 여기에 초자를 붙여 초하루 날, 초이튿날, 초사흘날, 초나흘날, 초닷새날, 초엿새날, 초이렛날이라고 달력 날 이름을 부른다. 샷날의 초샷날도 있다. 3 4일을 뜻하는 사날(사나흘)도 있다. 한째¹⁵⁾ 날(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닷째 날, 엿째 날과 밝날을 생각할 수 있다.

한(첫) 통 두 통 세 통 네 통 다섯 통도 있다. 이어 엿 통도 쓸 수 있다. 날개를 셀 때 ‘한두세네다여’도 있다.

‘하나, 둘, 셋, 넷’은 셈씨(수사)이고 ‘한, 두, 세, 네’는 매김씨(관형사)로 쓰인다.

이레 날 이름을 우리 토박이말로 써야 하는 까닭이 또 하나 있다. 그 동안 음력을 사용하면서 쓰던 말들이 음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줄어 날짜를 세는 셈말이 우리 말글살이 말셈머리(머릿속 사전/어휘부)

14) 주시경 선생은 ‘짬듬갈’에서 ‘듬’을 ‘말이 꾸미어지는 요리가지 법(法)을 이름으로 씀이라’고 뜻매김하고 있다. 또한 ‘듬’은 ‘한날 벌레인 벌의 모듬살이도 법제(法制)가 있는데 사람살이에 법도(法度)가 없어서야 되겠느냐고 타타하는 뜻에서 쓰이던 속담으로 「벌도 듬이 있지」가 있다. 또 대둔산의 옛 이름인 한듬산, 한듬절, 들에서도 ‘듬’의 쓰임을 살펴볼 수 있다.

15) 우리 토박이말 사전(한글학회, 2002)

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다. 중국을 통해 들어온 시현력의 영향으로 일일(一日)에서 삼십일(三十日)이 쓰인다. 이는 이웃 나라들이 달력 날짜를 읽을 때 그들 나라 말글의 전통을 담은 말미를 밝혀 쓰는데 비추어 우리나라는 한자어의 영향으로 날짜 이름을 日(일)로 읽는 데 익숙해졌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레 날 이름으로 예부터 써오던 ‘초하루 날, 초이튿날, 초사흘날, 초나흘날, 초닷셋날, 초엿셋날, 초이렛날’과 아랑곳한 이레 날 이름을 가려잡아 이레 날 이름으로 쓸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만이 이레 날이나 달력 날짜 이름을 모두 우리 날짜살이 셈말을 버리고 일본이나 중국의 한자어를 따를 까닭이 없다.

열흘이 지나 중순의 날짜를 이룰 때는 ‘열하루, 열이틀’처럼 ‘하루, 이틀’ 앞에 ‘열’을 붙여 썼다. 또 스무날이 지나면 ‘스무’를 붙여 ‘스무하루. 스무 이틀’과 같이 썼다. 우리 토박이말 사전(한글학회)에 ‘스무’의 뜻을 ‘스물의’로 풀고 보기를 ‘스무 이레’로 적고 있다.

이러한 속살을 살펴 초순, 중순, 하순의 날짜 셈말에서 이레 날(week) 굴대말을 살펴 적으면 ‘하룻날, 이튿날, 사흘날/삿날, 나흘날/낫날, 닷셋날, 엿셋날, 이렛날’이 된다.

이를 살피고 가다듬기 위해 날짜살이 셈말을 모아 체로 마련하면 ‘<체 1> 날짜 셈말의 밑가름’과 같다.

<체 1> 날짜 셈말의 밑가름

벼름	날짜 셈말									
굴대말	하 룻 날	이 튿 날	사 흘 날/삿 날	나 흘 날/낫 날	닷 셋 날	엿 셋 날	이 렛 날	여드 렛 날	아흐 렛 날	열 흘 날
초순	초 하 룻날	초 이 튿날	초 사 흘날	초 나 흘날	초 닷 셋날	초 엿 셋날	초 이 렛날	초 여드 렛날	초 아흐 렛날	초 열 흘날

중순	열 하 루날	열 이 튼날	열 사 흔날	열 나 흔날	열 닷 셋날	열 엿 셋날	열 이 렛날	열 여 드렛날	열 아 흐렛날	스 무 날
하순	스 무 하룻 날	스 무 이틀 날	스 무 사흘 날	스 무 나흘 날	스 무 닷셋 날	스 무 엿셋 날	스 무 이렛 날	스 무 여드렛 날	스 무 아흐렛 날	서 른 날
이 레 날 (week)	한날	두날	셋날	넷날	닷날	엿날	밝날			

이러한 생각을 모아 이레 날을 ‘밝날, 한날, 두날, 세날, 네날, 닷날, 엿날’ 이나 ‘밝날, 한날, 두날, 셋날, 넷날, 닷날, 엿날’로 쓸 수 있다. ‘세네’는 물건을 셀 때 많이 쓰이던 말이고 ‘셋날, 넷날’이 날짜를 부를 때 쓰이던 말이므로 우리 썸새얼(수문화)을 바탕으로 새롭게 다듬어 마련한 달자취의 이레 날을 ‘밝날, 한날, 두날, 셋날, 넷날, 닷날, 엿날’로 쓰면 이

레 날은 **밝날** 한날 두날 셋날 넷날 닷날 엿날
Sun **Mon** **Tue** **Wed** **Thu** **Fri** **Sat** 과 같이 적을 수 있다.

이러한 달자취를 베희소 갈망(주제 수행) 나날살이 달자취로 만들 수 있다. 베희소에 따른 중요로운 일문을 가려잡아 이레 날에 적어 넣으면 된다. 이레 어느 날에 무엇을 살피고 챙길 것인가를 밝혀 적으면 된다. **밝날** 한날 두날 셋날 넷날 닷날 엿날 이라 적고 그 날에 중요로운 일을 살피고 해야 할 일을 챙기면 된다. 들꽃을 가운데로 배울 때 그 들꽃이 자라는 곳을 살피는 배움을 도울 수 있다. 배움이란 한 조각 한 조각을 모아 여러 조각이 뭉뚱그려진 한통친 새물을 만들어 가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일본식 달력과 한국식 밝달 달력, 중국식 달력을 마련해보면 아래와 같다.

www.kci.go.kr

일본식 달력 2006年 11月						
日 Sun	月 Mon	火 Tue	水 Wed	木 Thu	金 Fri	土 Sat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밤달 달력 2006해 11달						
밖 Sun	한 Mon	두 Tue	삿 Wed	낮 Thu	닷 Fri	엿 Sat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중국 달력 2006年 11月						
日 Sun	一 Mon	二 Tue	三 Wed	四 Thu	五 Fri	六 Sat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일본식 달력의 칠요일을 직역하여 ‘달날, 불날, 물날, 나무날, 쇠날, 흙날, 해날’로 쓰는 이가 있는데 일본식 칠요일을 우리말로 바꾸어 쓰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이 또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의 일본식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글자 뜻풀이에 지나지 않는다. ‘월화수목금토’의 말뚝(어원)을 살펴보면 ‘해와 달’은 아랑곳하나 일본식 달력의 ‘화, 수, 목, 금, 토’는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을 나타내는 말이지. ‘불, 물, 나무, 쇠, 흙’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또한 이 낱말은 차례를 세는 서수의 성격이 없다. 까닭에 외워서 익혀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 땅의 셈살이와 아랑곳없는 일본의 칠요일 생 각일개를 그대로 따른 홀진 한자(漢字) 풀이말에 그치는 말이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화수목금토’의 순서는 상생 상극의 원리를 벗어나 ‘오행’의 기본논리에 맞지 않으며 낱짜를 세는 이 땅의 새얼말(문화어)이 아님을 살필 필요가 있다.

3.1. 셈 하나 이야기

먼저 ‘한’의 말미를 살펴보자 ‘한’은 낱개를 셀 때 ‘하나’를 뜻한다.

사전에는 「한1한①『일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그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말. 【역사】 =칸03(Khan). 일부 명사 앞에 붙어 ①'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한걱정/한길/한시름. ②'정확한' 또는 '한창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한가운데/한겨울/한낮/한밤중/한복판/한잠. ③'같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한패/한마을/한집안. [←하-[<하다 <용가>] +-ㄴ] 한-14 「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①'바깥'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한데. ②'끼니때 밖'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한동자/한음식/한저녁/한점심. 한15한『옛』 '환01'의 옛말. 『鐵鎚 줄…木鎚 한<<동해 하:16>>/鎊 한…木鎚 나모 한<<역보 44>>』로 적고 있다.

하루는 「하루1한①한 낮과 한 밤이 지나는 동안. 대개 자정(子正)에서 다음 날 자정까지를 이른다. ≒일일01(一日). 『시골 할머니 댁에서 하루를 보냈다./하루는 24시간이다./나는 하루에 두 번 주사를 맞는다./하루에 세 번 이를 닦는다. ②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느새 오늘 하루도 다 갔다./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시다. ③막연히 지칭할 때 어떤 날. 『언제 하루 날 잡아서 고향에 다녀와야겠다./하루는 집에 와

보니 어머니가 안 계셨다. [〈하르 〈흐르 〈석상〉]하루가 십 년 맞잡이 『북』 ①하루가 십 년처럼 길고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말.] 로 적고 있다.

하나는 ‘하날님>하나님’에서, 하나는 으뜸, 만, 처음이라는 뜻을 지닌다. ‘한개 두개’의 ‘한’도 ‘으뜸, 만, 처음’이라는 뜻이 있다. 상서(尙書)에는 “『한서(漢書)』에 ‘고구려’, ‘부여’, ‘한(韓)’이 있는데, ‘馬干’은 없으나, ‘馬干’이 곧 저 ‘韓’이라, 음은 같고 글자가 다를 뿐”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尙書』 卷18 周官 弟22 孔穎達疏 참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한반도 남부에 거주하는 주신족들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는 이 ‘韓’이라는 말은 중국 전국시대의 한(韓)나라가 아니라 단지 그 음을 빌려서 표현한 말이라는 것인데 [마간], 또는 [口가흔]·[한]·[카흔]·[카안]·[칸] 등으로 발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6[정재도, 「‘한’이나 ‘韓’이나 ‘馬干’이나」 『한글 새소식』 365호

16) 먼저 ‘한’이 고유어로서 가지는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한’은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말로 보통 서양에서는 ‘칸’, 동양에서는 ‘한’(일본에서는 ‘간’)으로 쓰이고 한반도에서도 ‘한’으로 사용합니다.

- ① 하늘[天]을 의미하는 경우 - 한인, 한웅 등, 한우물(하늘에 제사 지내는 우물)
- ② 우두머리[首長]를 의미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마립간)
- ③ 크다[大]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 한밭[大田], 한길[大路] 등
- ④ 하나[-]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 한 나라 (하나의 나라), 한 아버지
- ⑤ 같다[同]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 한 핏줄, 알타이는 한 핏줄, 한 겨레 등
- ⑥ 바르다[正]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 ‘한복판’

한(汗, 또는 韓)은 순 주신의 말로 ‘크다[大]’, 또는 ‘많다[多]’는 것입니다. 나아가 한(汗, 또는 韓)은 하나[-]이고 바르고[正] 가운데[中]이기 때문에 우두머리[임금]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김운희의 ‘대주신을 찾아서’ <21> 김누루하치와

(한글학회 : 2003. 1)].

하루와 아랑곳한 속담¹⁷⁾서도 나달을 세는 셈살이를 살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모으면 'monday'는 으뜸 되는 '한째 날', '한날'이라
갈음할 수 있다.

3.2. 셈 들 이야기

한 번 두 번의 한두 번도 있다. 한두 날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을
뜻하고 '하루(크고 높은 곳)'는 하늘을 뜻하는 날이고, '두루(넓은 곳)'
는 땅에서 이루어진 일문(사물)과 아랑곳한 뜻이 담긴 말이다.

'두리'는 '공둥'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둘째 날>둘날>두날'은 '솔나무>소나무'와 같이 '둘날'의 'ㄹ'이 줄
어 '두날'이 쓰임을 알 수 있다.

셈 살이 '둘'과 아랑곳한 속담으로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다(음식 맛이 매우 좋다는 말).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
(무슨 일이나 두 편에서 서로 맞받아 응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
/ 서로 같은 동아리라야 말다툼이나 싸움이 된다는 말).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다. 둘째 며느리 삼아 보아야 만며느리 착한 줄
안다.」 들을 들 수 있다.

산채나물, 2005.9.)

- 17) 하루 물림이 열흘 간다.(일을 한번 뒤로 미루기 시작하면 자꾸 미루게
된다는 말로서, 무슨 일이든 뒤로 미루지 말고 하라는 뜻). 하루 밤을 자
도 만리장성을 쌓는다.(잠시 동안의 은혜라도 그것에 깊은 정을 맺고 고
맴게 여기고 갚아야 한다는 뜻). 하루 세끼 밥 먹듯(지극히 평범하다는
말). 한 가지로 열 가지를 안다.(한 가지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행
동을 다 알 수 있다는 뜻). 한 날 한 시에 난 손가락도 길고 짧다.(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성격과 능력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뜻).

3.3. 셋 셋 이야기

초삿날의 삿날은 제사를 드리는 날로 닭삼(제사장)의 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삿’은 삼기다(생기다)의 ‘삼’과 말뚝이 같다.

『매년 초삿날 어머니는 목욕재개하시고 떡을 찌고 촛불을 켜신다. 그리고 절에 오르신다.

초삿날 치러지는 큰 뜻을 품은 작은 행사를 저는 얼마나 오래 볼 수 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고인다.

위도 띠뻬놀이는 위도 대리마을에서 매년 정월 초사흘날 마을의 안택과 풍어를 빌고 마을의 재액과 이런 염원들을 띠뻬에 실어 바다에 띄워 보내는 부락제에서 비롯된 풍어제다.

모든 주민들이 참가하게 되는 이 기맞이는 하루 동안 풍물을 치고 노는데 여기에 드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월 초삿날이 되면 각 마을에서는 풍물을 치며 집집을 방문하여 돈과 곡식을 거둔다.』

셋과 아랑곳한 속담을 찾으면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 할 놈 없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몹시 궁하게 되면 옳지 못한 짓을 하게 된다는 말). 서른세 해 만에 꿈 이야기 한다(오래 묻어 두었던 일을 이야기함을 비꼬아 하는 말). 석새베 것에 열세 바느질 (나쁜 것을 가지고도 기술만 좋으면 훌륭한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말. /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세 사람만 우겨대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여럿이 힘을 합치며 안 되는 일이 없다는 말. / 여럿이 퍼뜨린 말이나 소문은 결국 참말로 믿게 된다는 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어릴 때에 들인 버릇은 좀처럼 고치기 어렵다는 말). 내 코가 석 자(자기 일도 막막한 처지라, 남의 고통이나 슬픔을 돌볼 겨를이 없음을 이르는 말).』 들이 있다.

3.4. 썸 넷 이야기

달리기를 할 때 “하나, 둘, 셋” 하면 달려 나간다. “가위, 바위, 보” 하면 손을 낸다. 무엇인가 새물을 내는 ‘나다’와 아랑곳한 일이 일어나는 썸이다.

나홀날의 ‘나릅>나홀’은 뿌리 날에 읍이 붙은 것이다.(서정범, 1996, 312) 사날[명]사홀이나 나홀. [동의]사나홀. ¶ 경애와 그렇게 된 후 재작년 봄에 한창 달떠 돌아다니는 판에 숨어 다니는 술집 주모가 대어 준 모던 걸 하나를 데리고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집에 데려다가 한 사날 묵혀 보낸 일이 있었다.<1931, 염상섭, 삼대>

말의 나이를 나타내는 「사릅(세살), 나릅(네살), 다습(다섯살)」은 각각 뿌리 「살, 날, 닷」에 뒷가지 「읍, 읍」이 붙었음을 보여주고 있다.(서정범, 1996, 312) ‘사홀 날>삿날’과 같이 ‘나홀 날>낫날’로 쓸 수 있다.

네[네:] [관]수가 ‘넷’인. ¶ 네 활개(를) 치다[관용] ① 팔다리를 크게 휘저으며 걷다. ¶ 자기네들 만한 옷도 못 입고 네 활개를 치는 사람이나 모자도 안 쓴 채로 책권이나 들고 다니는 뜨메에리 친구들, 제 판에 빨리 걸으려고 하나 구지지한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옷자락이 스칠까 하여 허리를 까불닥하는 모던 걸들, 미끈한 양복을 입었으나 할 일이 없다는 듯이 지나가는 여자들을 앞으로 보았다 뒤로 보았다 하는 젊은 사람들.<1935, 박영준, 잭티> ¶ ② 의기양양하게 행동하다.

속담으로 ‘넉가래 내세우듯. 넉달 가뭄에도 하루만 더 개었으면 한다.’ ‘넉 동 다 갔다.’가 있다.

3.5. 썸 다섯 이야기

닷은 닛되 닛섬 들과 같이 다섯을 나타내는 말이다.

닷쪽빛(오방색)은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예부터 사용해온 빛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5가지 빛 속에는 그 빛 나타내고자 했던 뜻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뜻과 생각들은 전통 속에서 그대로 같이(응용)되고 있으며 지금도 닛쪽빛을 부린 갖가지 공예품이나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닛쪽빛은 음양오행의 오행을 닛깔로 나타낸 것으로 목(木)은 과랑(靑), 금(金)은 하양(白), 화(火)는 빨강(赤), 수(水)는 검정(黑), 토(土)는 노랑(黃)에 맞댄다. 음양오행 사상에 따르면 하양, 노랑, 빨강은 양(陽)이고 청색, 흑색은 음(陰)이며, 낱낱의 닛깔이 지닌 뜻과 새김티(상징)에 따라 오방신장, 오방처용무, 관복, 오방낭자, 오색실, 색동옷, 오곡, 단청, 화문석 등 우리의 먹고 입고 자는 삶 모두에 걸쳐 여러모로 내보이고 있다.

한국인의 곳품잡기(공간설정)에 있어서 오방위의 뜻울(개념)은 거의 모든 삶 곳품(생활 공간)에 맞게 쓰였다. 한국인 삶의 중심이 되었던 오례(五禮)와 같은 의식(儀式)이 모두 음양오행의 덕에 찬찬하게 따랐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군례(軍禮)때 사용하는 닛깔도 그러했다. 적을 칠 때에 사용하는 기(旗)를 오채야기(五彩牙旗)라고 말하며 동방 청색기, 서방 백색기, 중앙 황색기, 남방 적색기, 북방 흑색기로 인도하였다.

「거기에 갯물에 떨어버린 삭신이 조생이 한 자루로 빨발을 밀고 가던 홀몸 조개미 아짐/ 읍내 닛새장 막차를 기다리던 감나무가 있었고(박영근 시인). 닛새장이 서는 봉평의 어느 장날(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 나오는 닛새장도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단얹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제 열었다. 이렇듯 수를 세는 우리말을 살펴보면¹⁸⁾, 우리 조상들은 한

18) 오늘날에도 어린아이들은 종종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수를 헤아린다. 아마도 지능이 덜 발달되었을 우리 조상들도 손가락을 가지고 셈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다섯’부터는 수를 헤아리는 낱말이 손가락의 동작과 형태 등에 관련돼 있다는 가정 하에서 출발하여야 된다.

‘다섯’은 ‘하나’를 헤아릴 때부터 오므리기 시작한 손가락이 다섯을 셀 때는 마지막 새끼손가락까지 다 오므려져서 이젠 더 이상 오므릴 손가락이 남아 있지 않다는 데서 온 낱말일 것이다. 즉 손가락 다섯 개를 ‘다 썼다’는 뜻에서 ‘다섯’이 되지 않았을까?

‘여섯’은 ‘다섯’을 셀 때까지 다 오므린 손가락을 다시 펴는 데(여는 데)서 나온 말인데 즉 손가락이 ‘열려서 곧바로 ‘서’ 있는 모양이 되었다는 뜻에서 생겨난 낱말이라고 생각된다. 즉 ‘열려서 서 있다’가 ‘여섯’이 된 것이다.

다음 ‘일곱’은 먼저 ‘여섯’을 셀 때 손가락 한 개를 열고 곧바로 세웠는데 그 다음 ‘일곱’을 셀 때는 또 다른 손가락 한 개를 더 일으켜 세웠다는 뜻이다. 즉 손가락이 먼저 ‘여섯’을 셀 때 세워졌던 손가락과 더불어 곱으로(두개로) 일으켜 세워진 모양을 보고 만들어진 낱말이다. 즉 ‘일’어서서 ‘곱’으로 세워졌다.

‘여덟’부터는 그 당시에 연이어 일어난 세 개나 네 개의 손가락 모양을 나타내기에 적당한 말이 없었으므로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수를 구별하려고 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부터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셈을 세어가다가 ‘여덟’쯤 셀 때는 이제 마지막 숫자인 ‘열’이 거의 다 되어간다. 즉 ‘여물어간다(여덟)’는 생각에 근원을 하고 있는 낱말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아홉’은? 역시 지혜로운 발상에서 나온 단어다. 즉 인도-아리안 언어에서 ‘아’는 부정을 나타내는 의미로 ‘아니다’ ‘부족하다’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아홉’은 마지막 숫자인 ‘열이 아니다’나 혹은 ‘열’이 되기에는 ‘아’직도 ‘홉’족한 상태가 아니다(아홉)에서 나온 낱말일 것이다.

그런데 ‘열’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열’은 다섯 손가락이 다 ‘열린 모양을 보고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낱말이다. 이 ‘열’이란 낱말은 우리 조상들이 한반도에 정착한 후 상당한 세월이 지난 다음 사용하기 시작한 말이고 그 이전, 즉 한반도에 정착하기 시작할 당시에는 아마도 ‘열’이란 낱말 대신 이 세상 모든 것, 전부를 뜻하는 의미로 ‘다’와 비슷한 낱말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지나온 중앙아시아의 다리어지역인 이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금도 ‘열’을 ‘다’라고

손에 있는 다섯 손가락을 차례로 닫았다 폈다 하면서 수를 세었던 것 같다. 다섯이란 말은 한 손에 있는 손가락을 모두 닫았다는 말이며, 열은 그 닫았던 손가락들을 모두 열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손가락을 하나씩 닫았다 열었다하면서 한없이 셀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에다 하나 만 큼씩을 차례로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를 자연수라 한다. 이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박형중, www.n2n.pe.kr)

3.6. 셸 여섯 이야기

옛은 옛되 옛섬 들과 같이 여섯을 나타내는 말이다.

옛날은 극락문이 활짝 열리는 날이란다. 성을 뚫으면 병이 없어 오래살고 저승길엔 극락문에 당도한다는 전설 때문에 매년 답성놀이 행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성밟기는 저승 극락문이 열리는 윤달에 해야 효험이 많다고 하며 같은 윤달이라도 3월 윤달이 제일 좋다고 한다. 또한 옛새날이 저승 극락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하여 초옛새, 열옛새, 스무옛새 날에 성밟기 줄이 고비를 이루고 있다.(전북 고창읍성 전설)

매달 초하루에는 제일교(第一橋) 아래, 초이틀에는 제이교(第二橋)

부르며 우리 조상의 일부가 건너가서 살게 되었다고 생각되는 일본에서도 현재 ‘열’을 ‘도’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도 그 흔적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어서 전부를 의미하는 뜻의 ‘다’, 즉 ‘다 함께’ ‘모두 다’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면 그 옛날 10이 가장 큰 숫자였던 우리 조상들이 초기에 ‘열’을 ‘다’라고 불렀음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三國史記 地理志)에 나오는 옛 지명들을 해석해보면, 고구려 시대까지만 해도 열(10)을 ‘다’와 비슷한 ‘더’나 ‘덕(德)’으로 불렀음이 확실해 보인다.

“십곡현(신라)은 덕돈홀(고구려)이라고 불렀다(十谷縣一云德頓忽).”
 (김병관·문화탐험가·농학박사 신동아 2000년 10월호.)

아래 그리고 초사흘에는 배오개에, 초나흘에는 교동(校洞) 입구에, 초닷새에는 대사동(大寺洞) 입구에, 초엿새에는 종각(鐘閣) 앞에 앉아서 낭송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음 초이레부터는 도로 내려온다.(조수삼(1762-1849), 추재기이)

3.7. 썸 일곱 이야기

음력 정월 초이렛날은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고 해서 ‘사람날(人日)’로 불렀다. 제관의 선정은 정월 초이렛날 마을회의를 통하여 한다. 허기진 목숨의 허공(虛空)속에는 칠월 초이렛날 미리내를 나는 까막 까치의 하마하마 기다리던 날갯질 소리 가득하지만(오탁번 1미터사랑). 음력 7월 초이렛날 밤을 가리킨다. 이 날은 은하 동쪽에 있는 견우성과 서쪽에 있는 직녀성이 오작교에서 한 해에 한 번씩 만난다고 한다.

밝듬과 배달¹⁹⁾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날이 새면’, ‘날이 밝다’²⁰⁾와 아랑곳한 ‘밝은 날 밝날’을 형태로 삼아 초이렛날 ‘sunday’는 ‘밝날²¹⁾’

19) 우리 민족을 배달민족이라고 하는데 배달이라 함은 그 뜻은 매우 깊고 오묘한데 밝은 뜻의 겨레라는 뜻이며 밝땅이란 말이 배달이 되었다고 본다. 우리말의 음운법칙이 ‘박’, ‘백’이 ‘배’로 변하는 예가 많은바, 백천(白川)이 배천(白川溫泉), 박고개(赤峴) 혹은 붉은 고개(赤峴)가 배오개(동대문시장)로 변하는 실례가 있듯이, 옛말엔 산이나 땅을 ‘달’ 이라 발음했으며 밝땅→밝달→배달로 변했음을 할 수 있다.

밝달의 뜻을 언드라고 발달나무 단(檀)자를 일부러 조국의 이름에 붙여 단국(檀君)이라 하였으며, 아무튼 밝→배달=땅의 법칙에 따라 밝은 땅으로 해석이 되고 마침내 배달로 읽힌다는 배달의 어원을 알아두어야 한다.

20) ‘밝다’는 빛이 이루는 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결전의 날이 밝다. 아직은 날이 밝다. 봄하다; (날이 새려고) 흰빛이 비쳐 조금 밝다. (본디말; 희분하다). 오늘은 달이 매우 밝다. 벌써 날이 밝는다.

로 같음할 수 있다.

‘일주일(一週日)’도 우리말의 소리 줄가리를 따라 ‘한 이레 날’ 또는 ‘한 이레’ 하면 된다. ‘세 이레 샷날’하면 ‘삼주 수요일’을 같음한다.

위와 같은 이 땅의 자취어린 많은 셈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나달을 보내는 달자취(달력)를 만들 수 있다.

밝날, 밝듬과 배달 한밝달 이야기.

한날, 초하루, 하늘, 한과 칸 이야기.

두날 초이틀, 둘과 두리(공동), 듬 이야기.

샷날 초사흘, 셋과 삼시랑 할매 이야기. 삼기다(생기다).

넛날 초나흘, 넷과 네모, 넉 누리가 생기고, 짐지된 생명이 태어난 이야기.

닷날, 초닷새, 다섯과 닷새장, 다섯 손가락, 이승 사는 이야기.

옛날, 초옛새, 옛새 든 날 성 밟기 저승 아랑곳 이야기.

그리고 달자취의 날을 셀 때 ‘초하루, 초이틀,……초열흘’과 같이 상순에 맞는 이름을 셈씨 앞에 ‘초이레’처럼 ‘초’자를 넣어 붙였다. 이레 날을 부르는 말은 초’자를 붙이지 않고 부를 수 있다.

‘두 달 첫 이레 두 이레 되었다’와 같이 아기 크는 나달 가는 이야기꽃이 피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달 자취는 우리들의 삶을 넉넉하게 하는 맛이 있다. 이 땅의 셈살이와 나달이 가는 이야기²²⁾를 알아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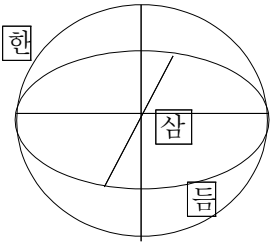
21) 밝다’와 ‘붉다’는 ‘불(블)’이라는 한 말밑에서 나온 것으로, 지금은 ‘밝’과 ‘붉’이 모음을 달리한 채, 뜻이 뚜렷이 구분되지만, 옛날엔 모음의 구분이 없이 ‘밝(또는 ‘붉’)’으로서 원래 한 뜻을 나타냈던 것으로 보인다.

22) 하나는 혼자 있을 때 가려잡은 ‘나’이고 둘은 먹을 것이 두개 있을 때 두리 곧 공동체를 이루는 짝을 생각하는 나눔이고 셋은 절대자 하느님을

지 아버지 아들손자가 한자리에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이 아름다운 나달 썸 이야기를 이 땅의 맛깔어린 말이 아닌 이웃나라 말로 배우는 일은 우리말의 늘품 터전과 기틀을 잃어버리게 한다.

‘한날, 두날, 샷날’은 ‘사찰’이라 불리기에 앞서 ‘절’이라고만 부를 때, 아기의 생명이 점지되는 바탕생각얼개(기본사상구조)인 ‘한듬삼’ 이야기와 아랑곳한 날이다. 이어지는 ‘낫날’은 삼시랑할매가 점지한 아기가 태어나 ‘참나’가 비로소 누리에 있는 날이다. 누리(세상)이 드러나는 날이기도 하다. ‘닷날’은 태어난 ‘나’가 이승을 살아가는 삶을 헤아리는 날이다. ‘옛날’은 이승을 살아가는 ‘나’가 저승을 생각하며 벌이는 일이 있는 날이다. 이어 ‘밝날’은 첫이레 마지막 날이요 두이레를 맞이하는 날이다. 밝음을 생각하고 새롭게 밝은 날을 맞아 하늘에 비손했던 날이다.

이렇듯 이레 날은 아이가 태어난 배경과 이승을 누리는 삶 그리고 저승에 얽힌 일을 말밑(어원)으로 하고 있다.



<그림 1 삶 공의 속살 >

덧나면 <그림 1 삶 공의 속살 >은 밝기운 ‘한’이 씨줄이 되고 덩기운이 ‘듬’이 날줄이 되어 짜는 삼기운 ‘삼’의 힘을 채워 드러난다. 밝듬의 누리에 와서 한날 씨줄을 드리우고 두날 덩기운의 날줄을 북에 담아 샷날 삼듬 배를 짜 낫날에 땅위에 덩직한 사람인 참나를 드러낸 다음 닷날에 일진을 살

펴 세고 삶을 돌아보며 옛날에 성밖기로 나들이하고 돌아와 이승의

생각하는 삼과 아랑곳한 썸이고 넷은 둘 사이에서 아들딸이 태어나니 ‘나다’와 소리말밑이 아랑곳한 낫날을 헤아리고 닷날은 이를 손가락을 모아 가며 헤아려보는 썸날 이다. 여섯은 누리를 열어나가는 옛날이 된다.

새날인 밝날을 맞이하는 모습은 한날 씨줄을 드리우기에 넉넉한 모습이 된다.

이러한 생각을 모아 어린이들의 국어사용능력 신장을 위한 썸살이 갈말(용어) 바꾸기를 위해 주시경의 ‘짬듬갈’에 담긴 수업원리를 활용한 <짬듬일 배움 열개>와 <짬듬갈 배움결 갈피밀 속내>를 바탕으로 국어 이레 날 짬듬일 새물속 배움새(교수-학습 과정안) 열개를 마련하면 다음과 같다.

<채 1> 이레 날 짬듬일 배움새 열개

배움 결	배움 자리결	배움 나기 알속(주요 내용)
일문 맞이	일문 만남, 아랑곳 챙기기, 실마리 찾기	◦ 달자취 만남 ◦ 도움말 ◦ 우듬지 싹틔우기 ◦ 아랑곳 이야기 쓰기 ◦ 짬듬일 달자취 이레 날 실마리 찾기
짬듬 알이	서로맞이, 살핌자리, 본데 자리(지적 자료의 확인), 부림 자리(지적 자료의 활용)	◦ (달자취) 이레 날 베품소 마련하기 ◦ 짬듬일 차례 마련하기 ◦ 짬듬일 달자취 만들기
	짬듬 가리새 적이	◦ 짬듬 속중나눔 ◦ 짬듬 가리새 마련하기
새물 내기	새물 드러내기(속짐짓, 믿음결 드러내기) 이레 갈책만들기	◦ 달자취 이레 베품 새물 모으기 -그림, 글, 우듬지 싹, 솟을 물음 ◦ 달자취 이레 날 갈책 만들기

이레 날 베품을 마련하는 일은 베푸는 일을 갈망하는데 성금이 있다. 이레 동안 하고자 하는 베품들을 하나씩 들춰보고 아랑곳한 조각

새물을 하나씩 챙기면 마지막 날 일곱 조각의 새물이 마련되는 멋진 갈책을 마련 할 수 있어 저가 무엇을 하려고 별렀는가를 맞짱할 수 있다.

<체 2> 이레 날 짬뽀일 배움 적이 갈책 열개

이레 갈책 열개	감국이 이야기	구절초 이야기	용담 이야기	2006해 10달 열달 베품소 가실들꽃.							물봉선이 이야기	새팔이 이야기	수쿠령이 이야기	책뒤에
				밝날	한날	두날	삿날	낫날	닷날	엇날				
				들꽃	감국	구절초	용담	물봉선	새팔	수쿠령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들꽃 야기그림										

4. 동서양 달자취 이야기

4.1. 우리나라에서 쓴 달자취

www.kci.go.kr

조선 초기에는 고려 공민왕 때 명나라에서 가져온 대통역법이 사용되었으며 세종 때는 이것을 실정에 맞도록 개편하여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을 엮은 일이 있다. 그 후 중국에는 가톨릭의 전래와 함께 서양문명이 들어와 역법에서도 살 폰 벨(중국 이름 湯若望)의 시헌력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1651년(효종 2) 김상범은 청의 흠천감(欽天監)에 교섭하여 시헌역법을 배워왔다.

1725년(영조 1)에는 《신수시헌칠정법(新修時憲七政法)》으로 고쳐 썼고, 1782년(정조 6)에는 서운관에서 천세력을 작성하고, 1894년(고종 31)에 이르러 서양의 태양력(太陽曆)을 사용하고 시헌력²³⁾을 참고하게 하였다.(두산세계대백과 사전)

1896년 1월 1일자로 공식력이 시헌력에서 태양력으로 바뀌었지만 1888년에 일본과의 합의에 의해 외교문서에 기록하는 월·일에 일진(日辰)²⁴⁾ 대신 서양의 요일(曜日)을 병기하기 시작했다. 청일전쟁에서

23) 중국에서는 1629년부터 14년간 숭정역법(崇禎曆法)이 쓰였는데, 이 역법은 서양의 수치와 계산방법이 채택된 것이다. 시헌력은 숭정역법을 교정하여 1645년부터 채택되었다. 한국에는 숭정역법이 도입되지 않고 대통력(大統曆)에 이어 곧바로 시헌역법이 채택되었다. 시헌력은 평기법(平氣法)을 폐지하고 처음으로 정기법(定氣法)을 쓴 점이 특징이다.

여기서 평기는 동지를 기점으로 하여 24기(氣)를 균등하게 취한 것이고, 정기는 황도를 15°씩 분할하여 태양의 각 분점을 통과할 때를 취한 것이다. 한 기로부터 다음 기까지의 기간은 평기에서는 약 15.218일이지만, 정기에서는 14.72~15.73일 사이이다. 따라서 중기(中氣)에서 다음 중기까지의 기간이 29.48일이 되는 수도 있어 1역월(曆月) 동안에 2개의 중기를 포함하는 경우가 생긴다.

24) 중국·한국·일본에서 쓰이던 태음태양력에서는 역일마다 간지 1개씩을 꼭꼭 배당하여 일진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1972년 7월에 발굴된 백제 무령왕릉의 지석(誌石)에 왕의 죽은 날이 '계묘년 5월 병술삭 7일 임진'이라고 새겨졌다. 이것은 죽은 날이 초이레이고 그날의 일진이 임진인데, 그

이긴 일본의 영향에 의해 태양력이 쓰이게 되었다.

시현력이든 태양력이든 이레(칠일)를 바탕으로 이레주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레 날 주기에 맞는 이레 날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일진 대신에 일본이 만든 ‘월화수목금토일’을 쓰게 된 것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는 손가락으로 육십갑자를 세는 우리 선인들의 셈수가 사라지게 되는 아쉬움이 있다. 십간십이지²⁵⁾를 손가락 마디

달의 초하루의 일진은 병술이라는 뜻이다.

현대에도 기제축(忌祭祝)에서는 이 지식에서와 같이 조상의 사망일과 그 일진 및 그달 초하룻날의 일진을 적어 놓는다. 일진은 육십 개의 간지로 되어 있으므로 역일에 대하여 60일의 주기로 반복한다. 이것은 음력 두 달 또는 두 달에 1~2일 더한 날수이므로 역일의 주기(週期)로서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적당한 주기인 듯하다.

고대로 중국에서는 여러 역법을 써왔다. 특히 같은 시대에 중국 본토에서 쓰던 여러 역과 한국·일본의 역이 제각기 다를 수 있다. 역일이 같지 않더라도 일진만큼은 언제나 같은 날에는 동일하다. 이것으로 보아 역일보다도 일진이 날짜를 알려주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 것 같다. 태음태양력에서 그 역일과 일진이 알려졌을 때는 만년간지표(萬年干支表)에 의하여 그레고리력일 또는 율리우스력일로 고칠 수 있다.

25) 십간은 10일, 즉 1순(旬)이라는 뜻에서 나온 것 같으며, 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로 표현된다. 점술가는 십간을 천간(天干)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을 부속시킨다.

십간과 아울러 십이지(十二支)가 은(殷)시대에 널리 쓰였다. 이 십이지는 자(子)·축(丑)·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戌)·해(亥)이다. 12라는 수를 택한 기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1년이 12달이라는 데에서 온 듯하다. 물론 12라는 수는 2, 3, 4, 6으로 나누어떨어지는 수이므로 다루기에 흥미 있는 수이다.

십이지는 지기(地氣)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음양과 오행이 결부되었다. 또 십이지수(十二支獸)라고 하여 동물과 결합되어 있다. 이것은 역월(曆月)·방위(方位)·시각(時刻) 등 여러 방면에 이용된다. 구체적으로 자·인·진·오·신·술은 양이고 축·묘·사·미·유·해는 음이라고 하였다. 또 축·진·미·술을 토(土)로 하고, 인·묘를 목(木), 사·오를 화(火), 신·유

를 짚어가면서 육십갑자 일진을 알아보던 슬기로운 셈본이다.

4.2. 달자취의 기원과 논의

이 땅의 소리 줄가리를 따라 ‘연월일’을 ‘해달날’로 윤달을 덤달로

를 금(金), 해·자를 수(水)로 배당한다.

BC 2세기경에는 십이지의 각 지(支)에 쥐·소·범 등 동물을 배당하였다. 오년(午年)에 출생한 사람은 말띠, 축년(丑年)에 출생한 사람은 소띠라고 한다. 간지가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과 결합되어 나날의 길흉(吉凶), 사람의 성질, 신수와 재수 등을 판단하게 되어 갖가지 미신이 생겼다. 예를 들면 말띠 여자는 화(火)에 속하므로 성질이 불처럼 거칠고 급하다 하며, 특히 병오생(丙午生)인 여자는 화가 겹쳐서 상부(喪夫)하는 팔자라 한다. 이런 터무니없는 낭설로 과거에 많은 여자가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소띠의 사람은 성질이 느긋하다고 한다. 범띠의 여자와 염소띠의 남자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말도 모두 틀린 말이다.

십이지는 음력 역월에도 배당하여 쓴다. 중국의 하(夏)나라에서는 인월(寅月)을 세수(歲首)로 하고, 주(周)나라에서는 자월(子月)을 세수로 하였다 하여 하나라의 5, 6월이 주나라의 7, 8월이라는 말이 있다.

집터나 묘자리를 정할 때 자좌오향(子坐午向)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향하라는 뜻이며, 특히 겨울 채광이 좋은 좌향이라는 뜻이다. 시간을 가리키는 말에 정오(正午)·자정(子正)이 있다. 정오는 오정(午正)과 같고 낮 12시 0분을 뜻하며, 자정은 밤중 0시 정각이다. 현행의 시제(時制)는 24시간제이므로 십이지시제(十二支時制)에 결합시키려면 각 지시(支時)를 초시(初時)와 정시(正時)로 갈라야 한다. 예를 들면 오초는 낮 11시부터, 오정은 낮 12시부터 1시간이고, 자초는 밤 23시, 자정은 밤 0시이다.

십간과 십이지를 결합하면 60개의 간지(干支)를 얻는다. 이것을 육십갑자·육갑(六甲) 등으로 부른다. 이들 육십지는 해마다 1개씩 배당하여 세차(歲次)라 하고, 다달에 배당하여 월건(月建)이라 하며, 나날에 배당하여 일진(日辰)이라 한다. 옛날부터 61세의 생일날에는 회갑잔치를 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 회갑(回甲) 또는 환갑(還甲)이라는 말은 출생한 해의 간지와 똑같은 간지를 가진 해가 돌아왔다는 뜻이다.

하여 달자취와 이레 날의 여러 가지 속내를 풀면 다음과 같다.

이레 일곱 날 제도의 터전을 책글 적이(문헌)로 볼 때 한 주(週)를 7일로 나눈 것은 성서가 최초다. 구약성서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더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이레를 구성하는 7일에 대해 ‘첫째 날, 둘째 날, ... 일곱째 날’로 불렀고, 십계명을 따라 ‘안식일’인 일곱째 날을 신성하게 여겨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쉬었다. 일곱날을 주기로 하여 일곱째 날에 쉬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져 내려왔다.

로마제국 콘스탄티누스 1세는 로마의 달력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쓰고 있던 이레 날을 도입했지만 바벨론의 점성술²⁶⁾에 뿌리를 두고 이레 날²⁷⁾의 이름을 붙였다.

세계력과 아랑곳한 이야기를 들춰보면

「1954년 7월,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연합 경제 사회 이사회는 ‘세계력²⁸⁾’ 안전에 대한 60개국 정부의 의견을 받아 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6) 점성가들이 생각한 별들의 운행은 오늘날과 차례가 좀 달랐다. 그들의 우주관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과 같았는데, 토성이 지구에서 가장 멀다고 생각했으며, 그 다음이 목성, 화성, 태양, 금성, 수성, 달의 순서였다. 그러나 거리와 상관없이 일곱 행성 가운데서도 가장 계급이 높은 신은 태양신이었다.

27) 칠요일(七曜日)의 영어이름은 일(日), 월(月), 토(土)는 천체(天體)이름 그 대로이며, 화(火),수(水), 목(木), 금(金)은 튜튼(Teuton)민족의 신(神)의 이름에서 왔다고 한다. 현재 쓰이고 있는 이레 날의 이름은 태양의 날 (Sunday, 일). 달의 날 (Monday, 월). 토성의 날 (Saturday, 토). 그 다음 넷은 로마 신들과 아랑곳한 튜튼 민족의 신 이름에서 찾을 수 있다. 티우 (Tiw, 전쟁의 신) (Tuesday, 화). 보덴(Woden, 두목 신, 공기와 하늘 및 과실의 신) (Wednesday, 수). 토르(Thor, 천둥과 날씨의 신) (Thursday, 목). 후로(Fro, 사랑의 여신) (Friday, 금).

다.

반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서독 등 20개국

조건부 찬성: 일본, 이탈리아 등 10개국

28) 현재 양력도 문목이 있다. 한달의 길이가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왜 달마다 날수가 28일부터 31일까지 들쭉날쭉해야 하는가라고 이들은 되묻는다. 또 날짜와 이레 날이 매년 달라 생활에 불편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달을 28일로 해서 1년을 13달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하지만 13달들은 13이라는 숫자가 서양의 불길함을 나타내고, 더욱이 13달 틀에서는 다달이 “13일의 닷날(friday)”이 꼭 끼어서 반발에 부닥쳤다. 1달 1날이 천문학에서 아무런 뜻이 없다는 점이다. 애초 고대 로마 달력에선 지금의 3달 1날이 새해 첫날이었으나 1, 2달이 추가 되면서 애초 새해 첫날은 3달 1날에서 밀려났다. 이런 까닭에서 ‘7, 8, 9, 10’의 뜻을 담은 달이 뒤로 밀려 9, 10, 11, 12달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세계력 고치기 주장은 1930해쯤부터 주창자인 미국의 엘리자베스 아켈리스가 83해 죽은 뒤 주춤해졌으나 요즘은 또 다시 인테넷 짐작 곱품(가상 공간)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세계는 한 차례의 세계전쟁을 치르고 나서 국제협력의 기운이 싹트면서 1922해에 로마에서 국제천문학회가 발족되어 달력을 고치는 벼름이 논의되어 1923해 국제연맹 주도로 개량안 공모가 있었다. 그 원칙은 1달 1날을 동지로 하며, 1이레 날은 7날, 1해는 52이레로 하며, 1해를 4철(4철로 나누어 날 철은 91일이 되고, 날 달의 1달은 31날, 2달과 3달은 30날로 한다. 이레의 첫날은 밝날(sunday), 마지막 날은 옛날(saturday)로 한다. 4때 x 91날 = 364날이 되므로 하루가 남게 되는데 남은 1날을 12/31로 하고 세계날로 하며 없는 날로 한다. 또 4해마다 돌아오는 덤해 1날은 6달 31날로 하고 덤해(윤년)로 부르며 역시 없는 날로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달자취날과 이레 날이 고르게 잡히지는데 끝내 이 세계력이 채택되지 않았다. 그 뒤 1950년 국제 연합이 시도하였고, 1954년 인도대표에 의해 벼름이 올려졌으나 끝내 차림으로 끝나고 말았다.

세계력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까닭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달력의 바탕 돌기로 가려잡은 “이레(week)’라는 것이 서양 중심주의<유대교, 기독교 제일과 관련> 생각 밀이라는 것이다. 동양은 예로부터 10진법<상순, 중순, 하순>을 써왔기 때문에 동양 마음새(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다.

무조건 찬성: 소련, 인도, 태국 등 10개국. 무응답: 20개국

이른바 현재의 G7 중에서 일본과 이탈리아를 빼고는 모두 반대²⁹⁾ 하였습니다。」

달자취란 그 겨레의 발자취(역사)와 새얼(문화)이 나달살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까닭에 하루아침에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바탕속(본성)과 아랑곳한 까닭을 다루기 때문이다.

4.3. 이 땅의 새얼로 새롭게 다듬은 달자취

영재교육에서 버름소를 잡아 달력을 만드는 수업을 하곤 한다.

몸을 버름소로 달력을 만들어 보면 가장 가까운 것을 다루면 쉽게 목표에 다다른 경우가 있다.

이에 날마다 우리 몸 한 곳을 보살피고 튼튼한 몸을 갖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만든 튼튼 달력에서 일본식 이레 날 이름인 ‘일월화수목금토’ 칠요일(七曜日)을 최한기의 신기통을 바탕으로 ‘몸눈코귀입손발’날이라 이름 하기도 했다.

나날살이에서 날짜와 이레 날(칠요일)이 무미건조한 들은말로만 이름 지어지면 이 땅의 날짜살이 이야기가 스러져 사람살이가 답답하고 지루해질 수 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겨레 나름의 삶의 향기와 빛 같이 있는 날짜 셈 이야기 마당이 열려야한다. 이를 위해 신명나는 삶이 드러나는 셈살이 달자취가 마땅히 마련되어야 한다.

29) 세계력을 반대한 나라들의 가장 큰 이유는 이레 날 제도가 파괴되는데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였고, 일요일은 그리스도교의 주일이며, 금요일은 이슬람교의 집회일이어서 이레날 제도는 이미 사회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력 운동은 이레 날의 질서를 중시하는 문화 전통의 벽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김교빈, 이현구, 동양철학에세이, 1963)

달 이름을 썸살이에 바탕을 두어 풀이하면

1월(정월)은 ‘첫째, 크고 바른달’이란 뜻으로 한달 또는 하늘이 열린 첫날 첫 달을 기려 ‘한밤달’이라 같음할 수 있고,

2월은 한해 가운데 두 번째 달이므로 두달이라 같음할 수 있고,

3월은 삼월 삼짓날 삼이 하늘에 봄을 알리는 달³⁰)로 삼달(생명의 달)이라 같음할 수 있고,

4월은 넷째달이라 녀달로 같음 할 수 있고,

5월은 수릿날³¹)이 있어 수릿달이라 부를 수 있고

30) 「도동 태하2리 학포마을 아담한 포구 마을 뒤쪽, 음력 삼월 삼짓날 당제를 지내는 해신당 뒤에 학이 앉은 모습의 바위가 있어 학포로 불린다. 금년 1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된 ‘봉화산도당굿’은 매년 음력 삼월 삼짓날(3월 3일) 봉화산 정상에 있는 도당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로, 봉화산 주변의 신내동, 상봉동, 중화동의 마을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며 도당에 모신 산신할머니께 제사를 올리던 것으로 400여년의 전통을 가진 대동제이다」

31) 수릿날은 일년 중 가장 약기가 왕성한 날이라 해서 큰 명절로 여겨왔고 여러 가지 행사가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단오는 더운 여름을 맞기 전의 초여름의 계절이며,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이기도 하다. 또 창포이슬을 받아 화장수로도 사용하고, 창포를 삶아 창포탕을 만들어 그 물에 머리를 감기도 한다. 그러면 머리카락이 소담하고 윤기가 있으며,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 외에 몸에 이롭다고 하여 창포를 삶은 물을 먹기도 하였다고 한다.

수릿날은 음력5월이니 무더위가 시작되는 무렵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채를 서로 선물하면서 올해도 더위를 타지 말고 강건 하라는 소망도 함께 선물 했다. 또 “대추나무 시집보내기”해서 수릿날 정오에 대추나무 가지를 치거나 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 놓아 더 많은 열매가 열리기를 기원하는 풍습도 있었다.

이밖에 단오의 풍속 및 행사로는 쭉과 익모초 뜯기, 부적 만들어 붙이기,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 단 오 비녀 꽂기 등의 풍속이 행해졌다. 또 만두를 빚어 먹고 수리치의 잎줄기를 넣고 빵은 멥쌀가루에 설탕물을 넣어 만든

6월은 여섯째달은 ‘예닐곱’의 ‘예’를 써서 예달이라 같음할 수 있고,
7월은 일곱째달은 ‘일고여덟’의 일고를 써서 일고달이라 같음할 수
있고,

8월은 한가윗날의 뜻을 빌어 가윗날이라 부를 수 있고,

9월은 열 달에 이르는 배아기의 아쉬움과 설렘을 담아 아레(아흐
레)의 아레를 써서 아레달이라 부르고,

10월은 한해의 낱알이 여물고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비추어 열달
이라 한다.

11월 동짓달은 동지가 들은 달이고

12월 선달은 설이 드는 달이란 뜻에서 나온 말이다. 지금은 설이
음력 1월에 해당하지만 수천 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는 동안 한 해의
출발을 어떤 달로 삼았는가 하는 것은 여러 번 바뀌었다. 그 중에는
음력 동지달, 곧 11월을 첫달로 잡은 적도 있다. 동지 팔죽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하는 말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도 그런
생활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12월 1일을 설³²⁾로 쓴 적도 있는데

수리취떡을 먹었다.

또한 궁중에서는 이날 제오탕, 옥추단, 애호, 단오부채 등을 만들어 신하들에
게 하사하기도 하였다

32) 설거지가 꼭 식사 후의 그릇 닦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다는 걸 많은 사
람이 모르고 있다. 나는 어려서 어른들이 비 오겠다, 비 설거지하자 라는
말도 듣고 자랐다. 즉 설거지라는 말에는 밥그릇을 닦고 정리하는 것만
아니라, 나중의 일을 대비해서 치우고 정리하는 뜻도 있는 것이다. 이 설
거지의 어원은 정리하다, 치우다, 마무리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다가 지금
은 사라진 옛말 설다 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정설이다. 나는 설날의 설이
바로 설거지의 어원이 되는 이 설다 에서 나왔다고 풀고 싶다.

12월 선달의 설은 설에서 나온 말로, 선달이라는 말 자체가 설이 들어 있
는 달이다 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설날 하루가 아니라 선
달 한달을 지난 1년 동안 해 온 일들을 정리하고 치우고 내년을 대비하였

사람들은 이 달을 설이 드는 달이라고 하여 '선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설달'이 '선달'로 된 것은 '술가락'이 '순가락'으로 된 것과 같은 갈떡(논리)이다. 지금은 1월 1일로 설이 바뀌었지만 선달이라는 말은 그대로 남게 된 것이다. 한해를 갈무리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달이다.

음력 12달 이름은 '한달,두달,삼달,네달,수릿달,예달,일고달,가윗달,아래달,열달,동짓달,선달'이라 할 수 있다.

음력 달 이름이 양력 12달 네 철 속살과 같지 않는 조각이 있으니 이를 새롭게 다듬으면 한밤달, 선달은 그 나름의 알맞은 까닭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나머지는 한가위가 들지 않은 가윗달과 같이 철과 맞지 않은 조각이 있다.

이를 네 철의 속살과 아랑곳하여 다듬으면

첫째 달은 '새해가 열린 첫날이 들은 첫달, 크고 바른달'이란 뜻으로 한밤달³³⁾이고,

던 우리 조상들의 슬기를 엿볼 수 있지 않은가. 그 선달의 대단원이 바로 설날인 것이 이제야 확연해 진다.(정대용의 우리말 좋은말 484호)

33) 태초(하늘이 열린 첫날)에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땅, 곧 한밤달 또는 한배달(태백산(太白山)에서 만년을 이어온 우리 겨레는 겨레의 기운이 일어나고 스러짐에 따라 처음의 한밤달(태백산)에서 백두산으로 다시 지금의 태백산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늘이 열린 첫날 첫 달을 기려 '한밤달'이라 같음한다.

한밤피(태백산)는 유산(흙으로 이루어진 산)으로 흙은 덕과 문(글)을 뜻하니 사람의 다섯 가지 행실 중 으뜸이며, 어머니이요, 하늘과 땅 사이 모든 생명체의 출발지이다. 하늘에서 뿌린 씨알이 흙에 묻혀야 비로소 한 그루의 나무와 풀로 자라듯 사람의 씨가 남자에게서 나오나 여자의 자궁에 어리지 못하면 한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풀과 나무의 자궁은 땅이 되며, 동물인 사람에 있어서 어머니의 자궁이란 우리 모두의 고향이며 바탕골이다.<자생식물 제18호(2002, 이석필) 태백산 이야기/첫 번째 한밤달의 '얼' 한배달의 '흔' >

둘째 달은 입춘(2월 4일경)이 들어 있으므로 들봄달이고,
셋째 달은 춘분(3월 21일경)이 들어 있으므로 온봄달이고
넷째 달은 무지개를 볼 수 있는 날씨가 되므로 무지개달³⁴이라 이름 할 수 있다.

다섯째 달은 입하(5월 5·6일경)가 들어 있으므로 들여름달,
여섯째 달은 하지(6월 21일경)가 들어 있으므로 온여름달,
일곱째 달은 소서(7월 7·8일경)와 대서(7월 23일경)가 들어 있으므로 더위달이고,

여덟째 달은 입추(8월 6~9일경)가 들어 있으므로 들가을달,
아홉째 달은 추분(9월 23일경)이 들어 있으므로 온가을달,
열째 달은 썸씨 ‘열’과 ‘열매가 여물고 거두는 철’을 말미므로 ‘열달’로 같음하고

열한째 달은 입동(11월 7·8일경)이 들어 있으므로 들겨울달이라 할 수 있다.

열두째 달은 ‘동지를 설로 쇠 적이 있는 설이 든 달’이란 말미과 아랑곳하여 선달이다.

이를 네철과 아랑곳하여 나누면

봄철과 아랑곳한 달은 ‘들봄달, 온봄달, 무지개달’ 이고,

여름철과 아랑곳한 달은 ‘들여름달, 온여름달, 더위달’ 이고,

34) 24지철 가운데 다섯째에 해당하며, 춘분(春分)과 곡우(穀雨) 사이에 든다. 음력으로는 3월이지만, 양력으로는 4월 5·6일 무렵이므로 태양의 황경(黃經)이 15. 에 있을 때이다. 보통 한식(寒食)의 하루 전날이거나 한식과 같은 날이 많고, 오늘날의 식목일(植木日)과도 겹치는 경우가 흔하다. 청명일(淸明日)의 준말로, 이때부터 날이 풀리기 시작해 화창해지기 때문에 청명이라고 한다. 예로부터 청명에서 곡우 이전까지의 15일 동안을 다시 3후(三候)로 나누어 1후에는 오동나무의 꽃이 피기 시작하고, 2후에는 들쥐 대신 중다리가 나타나며, 3후에 비로소 무지개가 보인다고 하였다.

가을철과 아랑곳한 달은 ‘들가을달, 온가을달, 열달’ 이고,
겨울철과 아랑곳한 달은 ‘들겨울달, 선달, 한밤달’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모아 우리 겨레의 삶이 드러나는 이 땅의 썸살이와 아랑곳한 달자취를 만들어보는 일은 말글살이를 넉넉하게 한다. 썸살이의 어휘부(머릿속 사전)³⁵를 이루는 이 땅의 이야기 들을 챙기고 배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일은 이 땅의 소리줄가리(음운 체계)와 새얼을 존중하고 늘품시키는 말글살이 터전이 된다.

날씨와 아랑곳한 말은 이 땅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에 겨레말의 소리줄가리를 바탕으로 말뭉을 살펴 토박이말을 다듬어 쓰는 것이 마땅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4지철과 아랑곳한 한국어 토박이말 소리줄가리를 바탕으로 한 어휘부 실마리를 마련하면 다음과 같다.

‘좁’은 ‘작다’는 뜻이 있고 ‘추’는 ‘추위’를 나타내므로 좁추(소한 : 1월 5일)라 하고, ‘한’은 ‘대목’의 뜻이 있고 ‘추위’ 터수를 살펴 한추(대한 : 1월 20일)라 하고, ‘들’은 ‘들어간다’는 뜻이 있으므로 ‘들봄(입춘: 2월 4일)’이라 하고, 새싹을 틔우는데 필요한 비가 내리는 뜻을 따라 ‘씩비(우수 : 2월 19일)’라 하고, ‘만물이 깨어나는 터수’를 살펴 ‘깨날(경칩 : 3월 6일)’이라 하고, ‘봄의 가운데 있다’하여 ‘온봄(춘분 : 3월 21일)’이라 하고, 맑은 날이 되는 터수를 살펴 ‘맑날(청명 : 4월 5일)’이라 하고, ‘날알이 잘 자라도록 비가 온다’는 터수를 따라 ‘날알비(곡우 : 4월 20일)’라 하고, ‘여름에 들어간다’는 터수를 살펴 ‘들여름(입하 : 5월 6일)’이라 하고, ‘풀이 잘 자란다’는 터수를 살펴

35) 화자가 저장하고 있는 형태소, 단어, 관용어 등과 같은 특정 언어형식들에 대한 지식의 내적 표상(Internal Representational of knowledge)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채현식 2003)

‘풀커(소만 : 5월 21일)’라 하고, ‘모내기 사름(활착)’을 살피 ‘벼사름(망종 : 6월 6일)’라 하고, ‘여름의 가운데 있다’ 하여 ‘온여름(하지 : 6월 21일)’이라 하고, ‘좀 덥다’는 터수를 살피 ‘좀더위(소서 : 7월 7일)’라 하고, ‘한’은 ‘대목’의 뜻이 있고 더운 터수를 살피 ‘한더위(대서 : 7월 23일)’라 하고, ‘가을에 들어간다’는 터수를 살피 ‘들가을>들갈(입추 : 8월 8일)’이라 하고, ‘더위가 물러간다’는 터수를 살피 ‘간더위(처서 : 8월 23일)’라 하고, ‘맑은 이슬이 내린다’는 터수를 살피 ‘맑이슬>맑슬(백로 : 9월 8일)’이라 하고, 가을의 가운데이라 하여 ‘온가을>온갈(추분 : 9월 23일)’이라 하고, ‘찬 이슬이 내린다’는 터수를 살피 ‘찬이슬>찬슬(한로 : 10월 8일)’이라 하고, ‘서리가 내린다’는 터수를 살피 ‘서리날(상강 : 10월 23일)’이라 하고, ‘겨울에 들어간다’는 터수를 살피 ‘들겨울(입동 : 11월 7일)’이라 하고,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 한다’는 터수를 살피 ‘좀눈(소설 : 11월 22일)’이라 하고, 많은 눈이 내린다는 터수를 살피 ‘한눈(대설 : 12월 7일)’이라 하고, ‘겨울의 한 가운데 있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터수를 살피 ‘온겨울(동지 : 12월 22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을 모으면 우리말을 말밑으로 한 의미관계(시정근, 1994, 169)³⁶⁾ 변화를 살필 수 있고 이를 적용하여 달자취 이름을 마련하여 쓸 수 있다. 이는 날씨와 날짜가 서로 아랑곳한 의미변화에 도움을 주는 말셈머리(어휘부) 형성의 터전과 기틀이 됨을 살필 수 있다.

36) 상보복합, 근접복합, 포섭복합의 의미관계(시정근, 1994, 169)

<체 2> 달자취 만들기 짬듬일 배움새

날짜	2005. 11. . 동안		배움이	학년 반 덩 곳		배움지기		
특활	1. 우리 달자취 만들기		벼름소	벼름 갈망 달자취 만들기				
배움바람	여러 가지 달자취를 요모조모 살펴보고 새로운 멋진 달자취로 드러낼 수 있다.							
배움감	달자취 만들기 팔림론							
배움결	배움 자리결	만들어 가는 배움 일몰 속내					도움말	
달자취 맞이	챙기기 쓸감모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자취 배움쓸감 모으기 - 우듬지 싹틔우기(발립그림 곁들이기) · 달자취와 아랑곳한 몸소 겪음 글쓰기(서너 줄) * 달자취 몸소 배움 미리 수와 챙기기 					*달자취 -줍쌀책 그림 이나 좋은말 모이 마련하 기(14장 마련 하기)	
짬듬 알이	본데맞이 살핌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레 아이놀 부르기-벼름수수께끼 * 달자취와 아랑곳한 앞엿거리 소개하기 * 달자취감 내들기(거침새감) · 달자취 만남 내들기 						
	본데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실벽에서 만나기. ② 마을 여러 곳에서 만나기. ③ 박물관에서 만나기.④ 인터넷 방에서 만나기. ⑤ 우리 집에서 만나기 						
	몸소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숫을 물음 적기 *몸소 짬듬 적어 - 달자취 짬듬일 배움 나기 속내 (1) 달자취 벼름 가려잡기 (알짬1) (2) 벼름소를 맞짬(확인)하고 달자취 만들기 차례 마련하기. (3) 달자취 만들기 자신의 마음에 와 닿는 그림함께글말을 이레 날마다 곁들인다. (4) 두레별로 모여 만들되 달자취는 모람 나름의 새물로 만든다. 					*거침새감(멀티미디어 자료)	
	배움가리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돌또기 2분 몸소 두레나눔 마련된 달자취와 아랑곳한 속중 나누기 * 짬듬일 갈망 배움가리새 적기 						
새물 내기	새물모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달력 맨 앞쪽에 달자취초등하기와 맨 뒤쪽에 배움 적이를 바탕으로 숫을 새물 마련하기 * 요모조모 멋진 달자취 마무리 ㄱ. 달자취 얼굴(달자취 첫장) 꾸미기 달벼름 차례마련하기, 그림, 달자취 이름 들 ㄴ.뒤적어 -몸소 가늠 생각 쓰기(달력 맨 뒷장 14) -갈음시 한 수 마련하기 						

<덧나기>

한 해 달자취 만들기 열개

달자취 얼굴(1)	달자취 12 바탕(2-13)	달자취 뒤적이(14)																																										
<p>밝달 달자취 2005해</p>	<p>2005해 10달 열달 버름소 아기 튼튼</p>	<p>텃밭에서 거둔 호박, 수수, 돈부, 콩 고구마 맛있었다.</p>																																										
<p>새롭이 달자취 호뜻한 만남</p>		<table border="1"> <thead> <tr> <th>밝달 돋움</th> <th>한달 감국</th> <th>두달 구절초</th> <th>셋달 용담</th> <th>넷달 물냉이</th> <th>닷달 새팔</th> <th>열달 수경</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2</td> <td>3</td> <td>4</td> <td>5</td> <td>6</td> <td>7</td> <td>9</td> </tr> <tr> <td>9</td> <td>10</td> <td>11</td> <td>12</td> <td>13</td> <td>14</td> <td>15</td> </tr> <tr> <td>16</td> <td>17</td> <td>18</td> <td>19</td> <td>20</td> <td>21</td> <td>22</td> </tr> <tr> <td>23/30</td> <td>24/31</td> <td>25</td> <td>26</td> <td>27</td> <td>28</td> <td>29</td> </tr> </tbody> </table>	밝달 돋움	한달 감국	두달 구절초	셋달 용담	넷달 물냉이	닷달 새팔	열달 수경	-	-	-	-	-	-	1	2	3	4	5	6	7	9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30	24/31	25	26	27	28	29
밝달 돋움	한달 감국	두달 구절초	셋달 용담	넷달 물냉이	닷달 새팔	열달 수경																																						
-	-	-	-	-	-	1																																						
2	3	4	5	6	7	9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30	24/31	25	26	27	28	29																																						
<p>달이름 달벼름 한뽕달이라 마음튼튼 들봄달이라 이튼튼 온봄달이라 숨결튼튼 무지개달이라 이웃튼튼</p>	<p>10달은 늦가을 달이라 노란 은행잎이 움씩 떨어져 보기가 좋다. 친구들과 함께 그네를 탔다.</p>																																											
<p>들여름달이라 머리튼튼 온여름달이라 손튼튼 더위달이라 더위튼튼</p>																																												
<p>들가을달이라 집안튼튼 온가을달이라 밭튼튼 열달이라 아기튼튼</p>																																												
<p>들겨울달이라 몸튼튼 선달이라 띠앗튼튼</p>																																												

이 밖에도 달벼름37)을 나뉠대로 찾아 지은 것을 살펴보면 남녘교회

www.kci.go.kr

임의진 목사가 이름 붙인 달이름³⁸⁾, 김태종 목사가 마련한 달이름³⁹⁾이 있다.

우리말 달력 가운데 밝달 달력 이름이 어느 달이름보다 좋은 점은 24지철이나 네 철의 날씨와 전통 문화를 말밑(어원)으로 삼은 까닭에 12달의 차례가 쉽게 떠오르는 점이다. 밝달 달력의 이레 날을 줄여 쓰는 말인 ‘한, 두, 셋, 넷, 다섯, 여섯’은 서수의 성격을 지닌 토박이 말인 까닭에 단순한 한자어 풀이말인 ‘해, 달, 불, 물, 나모, 쇠, 흙’보다 차례가 쉽게 떠오른다.

무엇보다도 우리말의 소리줄가리(음운체계)를 따른 달이름과 이레 날을 토박이말로 쓰려는 까닭은 우리 말글살이의 바탕이 되는 말샘머리(어휘부/머릿속 사전)⁴⁰⁾를 활성화시켜 우리말과 글을 다루는 솜씨를 넉넉하게 하는 성급에 있다.

덧나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는 즈음에 서양이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한국문화의 특징에 맞는 교육미립과 내

37) 그 달 그달에 하고 싶은 일이나 아랑곳한 것들.

38) 1월은 해가 힘차게 떠오르는 달이니 해솨름달, 2월은 꽃샘추위가 있는 겨울의 끝달이니 「시샘달」, 피와 들에 물이 오르는 3월은 「물오름달」, 나무에 잎새가 돋는 4월은 「잎새달」, 모든 것이 푸른 5월은 「푸른달」, 온누리에 생명이 가득 차는 6월은 「누리달」, 칠석이 들어 있는 7월은 「견우직녀달」, 태양이 뜨겁게 타오르는 8월은 「타오름달」, 가지마다 열매가 열리는 9월은 「열매달」, 나라가 처음 열린 10월은 「하늘연달」, 가을에서 겨울로 치닫는 11월은 「미틈달」, 한해의 끄트머리인 12월은 「매듭달」(녹색연합, 작은 것이 아름답다)

39) 1월 열음달 2월 고움달 3월 바람달 4월 꽃님달 5월 오름달 6월 맺음달 7월 돋음달 8월 달굼달 9월 익힘달 10월 거듬달 11월 비움달 12월이 다짐달.

40) 채현식(2003)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11쪽 (화자의 머릿속에 저장된 어휘항목들의 목록과 그 정보의 집합체)

용을 마련해야 할 과제가 있다.(김중섭, 2004, 338)

대학을 다녀도 오늘날 학술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글쓰기가 어려운 까닭은 우리가 쓰는 전문 용어를 온통 일본식 한자어나 들은말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말은 우수하고 열등한 말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외래어로써의 한자와 같은 들은말이 가지는 뜻줄가리(의미체계)만으로 이루어진 어휘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어휘들은 주어진 개념을 나타내는 낱말 하나를 가리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인위적으로 외워야 복사된 지식이 늘어나게 되므로 절로 어휘부가 형성되는 우리 토박이말의 쓰임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 땅의 토박이말 소리 말미를 갖지 못한 말셈머리(어휘부)로는 일삼아 글을 쓰는 아주 적은 사람들을 빼고는 절로 나오는 말셈머리를 가질 수 없어 말무리(언중)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토박이말 사용 비중을 학술용어의 50%까지 빠르게 늘려나가야 한다.

5. 맺음말

이 땅의 낱씨 썸은 참살이와 아랑곳한 속살이 있다. 때곳품(시공간)에 따른 곳은 삼시랑 할매와 조상님께 아이의 자람을 알리고 이제까지 자람에 고마운 마음을 아되는 자리가 되고 앞으로 튼튼하고 고이 자라기를 비손하는 자리가 된다.

손모음(합장)은 이 땅에서 비롯된 많은 낱씨 썸 이야기를 꺼낸다.

한날은 하늘과 아랑곳한 이야기를 짚어보고 두날은 자람의 듚이 있는 땅누리와 아랑곳한 이야기를 나누는 삶이 있고 셋날은 삼을 말 밑으로 하는 스승, 스님, 말슴의 슴(語)(서정범, 1996, 295) 들의 슬기

www.kci.go.kr

와 만나는 날이다. 오랜 이야기의 슬기를 배우고, 낯날은 앞서 세 기운을 모아 새물이 나는 ‘나다’를 가운데로 한 네모 네 방향을 살펴본다.

낯날은 닳새장이나 다섯 손가락과 얽힌 이야기를 들춰보고 옛날은 저승문이 열리는 날을 새겨 이승과 저승의 여러 가지를 되짚어보고 이레 마지막 날은 밝음을 되살피는 삶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말끝마다 사람들은 대등과 중용을 이야기한다. 한겨레의 썸살이를 바탕으로 한 달자취를 가지는 것도 대등과 중용이라 말할 수 있다. 서양과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이 모두 그 나라의 날짜살이와 아랑곳한 달자취를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우리나라도 이 땅의 날짜 썸살이와 아랑곳한 달자취를 마련하는 것이 보편성이 있고 대등해지는 것이다.

이레 날 이름으로 우리 토박이말을 써야 하는 까닭을 가다듬으면 첫째로 우리 날짜살이 썸말의 전통을 잃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

둘째로 달력에 이웃 나라의 식민언어를 그대로 쓰는 틀을 벗어날 수 있다.

셋째로 우리말의 소리 줄가리에 터전을 둔 말썸머리(어휘부)를 늘 품할 수 있다.

넷째로 이 땅의 날짜살이 썸 새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땅의 자취어린 많은 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나달을 보내는 달자취(달력)를 만드는 일은 뜻있는 일이다. 이는 우리들의 삶을 넉넉하게 하는 맛이 있다. 그 달 그 달에 자신이 하고 싶은 버르는 일이나 중요롭다고 생각되는 일을 바탕으로 달벼름(달제재)을 마련하면 배움 맛이 다르다.

이 맛깔스런 나달 썸과 아랑곳한 이야기를 담은 이 땅의 새얼을 바탕으로 달자취를 마련하는 뜻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들이 제 나라 토박이말의 참맛을 누리는데 있다. 맛깔도 빛깔도 없는 이웃나라 말을 생각 없이 그저 따라 쓰면 우리말이 빛을 잃고 스러지게 된다. 말이 스러지면 우리 겨레의 생각얼개가 힘을 잃게 된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고 외치면서 그 목소리를 담은 이야기를 일본식 의역한자어로 한다면 우리 얼은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한 조각이라도 바꾸어 이 땅에 터 잡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말과 이 땅에서 생성된 우리겨레의 생각 얼개로 떳떳하게 자신의 말글살이를 누리는 의사소통의 터전과 기틀을 바꾸는데 있다.

이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말글로 이 땅의 소리 줄 가리를 따라 마련되는 썸 살이 의미장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자주 쓰게 되면 썸살이 낱말들과 아랑곳한 많은 낱말들이 반복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다. 그 결과 우리 말글살이도 넉넉하게 늘품(발전)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다.

※ 참고 문헌

-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1997-15호』, 1997.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즐거운생활2-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2.
 김광해, 『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조망』, 2002
 김교빈, 이헌구, 동양철학에세이, 1963
 김정섭, 아름다운 우리말 찾아쓰기 사전, 한길사, 2001.
 두산동아, 두산세계대백과사전, 1999.
 문부성, 『초등교육자료(소화41년도 소학교교육과정연구발표대회집

록)』, 동양관출판사, 1967.

박종갑, 국어의미론, 박이정, 2003.

서정범, 우리말의 뿌리, 고려원, 1996.

시정근,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1994

심재기, 국어 어휘론, 집문당, 1983.

염시열, 『한국인의 생각미립을 터전으로 하는 글쓰기 열개』, 교육
한글16-17호/한글학회, 2004

염시열, 『한글 문화 배움새로 국어 수업하기』, 교육한글 14호, 한글
학회, 2002.

채현, 이익섭, 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2005.

채현식,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태학사, 2003.

김중섭, 한국어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 2004.

한글학회, 우리 토박이말 사전, 어문각, 2002.

허용, 언어학개론, 정음사, 1968.

염시열

565-861

전북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168-7

군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누리편지 : munna@chol.com

권병로

573-701

전북 군산시 미룡동 산 68번지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누리편지 : prkwon@kunsan.ac.kr

www.kci.go.kr

토박이말 찾아보기

갈책(워크북)	한밤달(1월)	일)
달자취(달력)	들봄날(2월)	벼사름(망종 : 6월 6
덤달(윤달)	온봄날(3월)	일)
덤해(윤년)	무지개달(4월)	온여름(하지 : 6월
동안(시간)	들여름달(5월)	21일)
때(시각)	온여름달(6월)	좀더위(소서 : 7월 7
때놀(시간)	더위달(7월)	일)
때술(시간수)	들가을달(8월)	한더위(대서 : 7월
때결(시량)	온가을달(9월)	23일)
마음새(정서)	열달(10월)	들가을>들갈(입추 : 8
문목(문제)	들겨울달(11월)	월 8일)
미림(방안/방법)	선달(12월)	간더위(처서 : 8월
바탕속(본성)	좀추(소한: 1월 5일)	23일)
발자취(역사)	한추(대한 : 1월 20	맑이슬>맑슬(백로 : 9
삶결(생활)	일)	월 8일)
새얼(문화)	들봄(입춘: 2월 4일)	온가을>온갈(추분 : 9
셈살이(수생활)	씩비(우수 : 2월 19	월 23일)
이레 날(요일)	일)	찬이슬>찬슬(한로 : 10
24지철(24절후)	깁날(경칩 : 3월 6	월 8일)
짐작 고품(가상 공간)	일)	서리날(상강 : 10월
책글적이(문헌)	온봄(춘분 : 3월 21	23일)
철(계절)	일)	들겨울(입동 : 11월
한이레(일주일)	맑날(청명 : 4월 5	7일)
한날(월요일)	일)	좀눈(소설 : 11월 22
두날(화요일)	난알비(곡우 : 4월	일)
삿날(수요일)	20일)	한눈(대설 : 12월 7
낫날(목요일)	들여름(입하 : 5월 6	일)
닷날(금요일)	일)	온겨울(동지 : 12월
엿날(토요일)	풀커(소만 : 5월 21	22일)

www.kci.go.kr